

[‘전정특신’기업탐방—왕청편]

왕청도원목이버섯, 업종의 품질 제고와 발전 이끌어



2024년 12월 20일, ‘정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기업 탐방 취재팀이 왕청현 천교령진에 위치한 왕청도원목이버섯생태산업단지 생산작업장을 찾았을 때 전반 생산과정은 자동화, 스마트화, 표준화 모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회사 상무부총경리 손삼은 “왕청도원목이버섯생태산업단지는 목이버섯 스마트생산 공예절차를 자주적으로 개발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업 4.0 표준을 목이버섯산업에 도입시켰으며 스마트화 설비 생산, 무인운행을 실현했다. 또한 전에 비해 능률이 10배 이상 제고되었다.”고 소개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왕청도원목이버섯산업유한회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이버섯산업시설로서 지난 10여년의 발전을 거쳐 완전하고 복제 가능한 산업시설 모식과 경험을 축적했는바 선진적인 전반 산업시설 승격 플랫폼으로 목이버섯 업종의 품질 제고와 발전을 이끌고 있다.

2017년 7월에 착공된 왕청도원목이버섯산업단지대상은 지금까지 2억

6,000 만원을 투입해 지능화 중앙공장, 지혜하우스 양식실전문연구소, 목이버섯제품 심층가공작업장의 일부를 건설했다. 이미 건설된 지능화 중앙공장은 부지면적이 3만 5,000 평방미터이며 스마트화, 표준화 모식으로 목이버섯 3급 균종(菌包)을 생산하고 있다. 추후 1억 4,000 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심층가공작업장을 승격시키고 왕청도원목이버섯문화체험중심을 건설하게 된다.

한편 18헥타르에 달하는 지혜하우스

양식실습기지에는 유기, 친환경, 지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80개 목이버섯 립체양식하우스가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500만주머니에 달하고 해마다 유기목이버섯 3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지혜하우스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최적의 목이버섯 양식기술을 장악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6배 제고되고 품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2022년 관련 부문의 지도하에 길림성 첫 ‘합마촌’ 모식이 왕청에 도입되었고 합마(중국)유한회사와 심층 합



작을 시작했다.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취취’, ‘나나’ 등 특색 계열제품의 품질은 합마신선마트의 인정을 받았고 하이디로(海底捞), 촉해(蜀海) 등 고품질 음식브랜드의 공급업체로 되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회사에서는 도원 표준화 육균방(育菌房)을 적극 건설하고 있는데 중앙공장과 균종합작사의 산업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어 주었는바 공장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뿐더러 균종이 류통과정에 감염되는 등 불안정 요소를 효과적으로 피면하여 양식효가 현지에서 목이버섯을 양식하고 양식수준을 제고하며 수입을 늘이는 데 매우 유리하다.

년간 생산량이 3,000만근에 달하는 목이버섯 심층가공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 원산지 창고를 건립하고 알리 ‘차이나오’(菜鸟)와 합작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계산 등을 통해 연구 개발, 설계, 포장, 저장, 물류를 일체화한 전방위적인 봉사를 실현했다. 한편 ‘1개 사슬주형기업+1개 산업집군(스마트중앙공장+분포식 양식하우스+농민합작사+지혜하우스+산업균종)+고품질 경로+소비자’라는 도원 자체의 ‘1+1+X’ 모식을 형성했다. 이 모식을 통해 산업의 표준화, 브랜드화, 경로화, 금융화, 대상화, 조직화를 실현했다.

손삼의 소개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지 10년 사이 스마트중앙공장 모식을 보급하고 락후한 목이버섯균종 생산 모식을 점차 대체하며 국가 향촌진흥 전략에 부응하여 전국 식용균업종시장의 승격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기업은 선후로 길림성농업산업화중점선진기업, 국가급 고신기술기업, 국가식용균산업 기술체제 과학기술시범기업, 길림성 2022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길림성기업기술중심으로 평의되었으며 현재 15개 소프트웨어 저작권특허, 15개 실용신형특허, 3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고 20여가지 실용신형특허와 발명전매특허를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화기자

중국—유럽 화물열차 화물 발송량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1일 오전 10시 쯤 일음잡화, 자동차 부품, 기계 설비 등 수출품을 실은 X8410편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길강성 의오서역에서 출발했다. 이는 올해 장강삼각주 지역에서 출발하는 첫번째 중국—유럽 열차이다.

이날 중국 국가철도그룹(중국철도) 상해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의오시에서 운행된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총 1,300편에 달했다. 화물 발송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오 중국—유럽 화물열차(중앙아시아 방향 포함)는 까자흐스탄, 벨스카, 독일 등 50여개국으로 갈 수 있는 운송 로선 20개를 개설했다. 화물 품목은 초기의 1만여종에서 5만여종으로 늘었다.

한편 중국 철도 부서는 운송 효율이 높은 복합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운송 통로 보장에 힘쓰고 있다.

/ 신화사

연변 열차운행에 이런 변화 생겼다



빙설 ‘랭자원’을 ‘열경제’로 변화시키고 ‘인터넷 인기’를 ‘장구한 인기’로 전화하는 데 조력하고자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에서는 시장 수요에 따라 운행도를 제작했다. 5일 평시부터 연변과 관련된 객열차 3쌍이 추가 운행되고 1쌍의 운행로선 구간이 연장되었다.

광범한 객열차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철도심양국집단에서는 연길차무단 관할구역내 열차운행도를 조정했다. 연길서역—태원남역 G2604 편, G2603 편 열차가 추가 운행되었다. 이로써 연길에서 산서성 태원시까지 처음으로 고속열차 직행이 가능해지며 두 지역간 이동시간이 원래의 14시간 22분에서 11시간 16분으로 단축되어 연선 주민들의 출행에 편리하게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중도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되었다. 연길서역—장춘역 C1013 편, C1014 편 열차가 추가 운행되었다. 조정을 거친 후 연길—장춘 구간 객열차는 최대 36.5쌍에 달했다. 또 연길서역—할빈역 D545 편, D546 편 열차가 추가 운행되었는데 연길서역에서 할빈에 이르는 객열차가 4쌍에 달했다. 이로써 두곳의 량질 관광자원을 연결시켜 광범한 객들에게 빙설관광 및 민속관광을 즐길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G2602/3 편 태원남역—연길서역 태원남역에서 7시 43분에 발차, 석가장역, 보정동역, 백양전역, 백구역, 패주서역, 천진서역, 군량성북역, 당산역, 진화도역, 산해관역, 호로도북역, 금주남역, 반금북역, 심양북역, 철령서역, 창도서역, 장춘역, 길림역, 교하서역, 둔화역을 거쳐 연길서역에 19시 19분에 도착.

C1013 편 장춘역—연길서역 장춘역에서 8시 33분에 발차, 길림역, 교하서역, 둔화역을 거쳐 연길서역에 10시 57분에 도착.

C1014 편 연길서역—장춘역 연길서역에서 19시 42분에 발차, 둔화역, 교하서역, 길림역을 거쳐 장춘역에 22시 06분에 도착.

D546/3 편 연길서역—할빈서역 연길서역에서 13시 51분에 발차, 둔화역, 교하서역, 길림역, 장춘역, 덕혜서역을 거쳐 할빈서역에 17시 38분에 도착.

D544/5 편 연길서역—할빈서역 할빈서역에서 9시 50분에 발차, 장춘역, 길림역, 교하서역, 둔화역을 거쳐 연길서역에 13시 26분에 도착. 새 운행도가 실시되면 연변주가 장춘 2시간, 할빈 4시간 경제권에 융합되는 것을 일층 추동해 지방 관광, 경제, 문화교류 및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된다.

G2604/1 편 연길서역—태원남역 연길서역에서 11시 25분에 발차, 둔화역, 교하서역, 길림역, 공주령남역, 창도서역, 철령서역, 심양북역, 태안역, 반금북역, 흥성서역, 산해관역, 진화도역, 당산역, 천진서역, 석가장역을 거쳐 태원남역에 22시 41분에 도착.

/ 연변라디오텔레비전넷

양력설 휴가 기간 연인수로 180 만 3,000 명 출입국

2일, 국가이민관리국은 2025년 양력설 휴가 기간 전국 변방검사기관이 연인수로 180만 3,000명의 중외인원의 출입국을 보장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증가했다고 통보했다. 그중 내지 주민의 출입국은 연인수로 86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했고 향향, 오펜, 대만

주민은 74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외국인은 18만 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3.6% 증가했으며 출입국 교통운수수단 6만 7,000차를 검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의 통일포치에 따라 전국 변방검사기관은 전원을 동

원하여 주동적으로 행동했으며 각종 상구의 출입국 인원 류량의 절정기를 앞당겨 예측하고 사회에 공포함과 동시에 광범한 객들이 려정을 합리하게 배치하도록 제시, 인도했다. 과학적으로 근무를 조직하고 근무인력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검사 통로를 충분히 개방해 중국공민의 출입국 통관이 30분을 초과하지 않

도록 확보했다.

통상구 연합검사 단위와 지방 관련 부문과 밀접히 협동, 련동하여 일부 중점통상구의 통관시간 연장을 협상, 추진하고 절정기 객흐름과 교통 종합보장을 잘하여 객의 통관을 최대한 편리하게 하고 통관 안전과 고능률, 원활함을 공동으로 확보했다.

/ 신화사

우리 나라 해양 수산물 총량 35년 연속 세계 1위 유지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 해양 경제가 강력한 발전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국가 에너지와 수자원, 식량 공급 보장 면에서의 해양의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 수산물 총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해 35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했으며 명실

상부한 ‘푸른 곡물 창고’로 부상했다. 한편 선박 및 해양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해상 운송 및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의 3분의 1 을 초과하여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 과학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

되었다. ‘몽상호’심해 탐사시추선이 대양을 누비고 남극 진령과학고찰소가 빙설 속에 세워졌으며 마조해양수치예보모델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었으며 해양 기술은 지능화, 무인화, 디지털화여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해양의 혁신적 융합

도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과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연해 지역의 성들은 스마트 어업과 스마트 항구, 스마트 해상운수 등 새로운 해양 산업을 발전시켜 전통 해양 산업의 스마트화에 진력하고 있다.

/ 국제방송